

‘신종 코로나’ 감염 中관광객 제주 활보

귀국 후 이틀만에 발병... 잠복기 상태에서 제주 관광 목었던 숙박업소 직원 5명은 집중관찰 대상 지정

제주를 여행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50대 여성 중국인 관광객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이 확인됐다. 제주에 체류할 당시 ‘잠복기’로 추정되고 있지만, 최근 잠복기 중에도 전염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오면서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16분쯤 국토교통부 제주항공청으로부터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무사증으로 제주여행을 한 중국인 관광객 유모(52·여)씨가 본국 귀국 다음날인 1월 26일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 3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통보는 유씨가 탑승한 항공사 직원이 한 것이다.

유씨는 중국 양저우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주에는 딸과 함께 방문했다. 현재 딸에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이 없는 상태다.

제주도는 즉각 질병관리본부에 통보를 했지만 “관리 및 발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중국 정부와 연락을 취하며 유씨의 제주 체류 당시 동선을 파악했다. >>관련기사 4면

파악 결과 유씨는 21일 마지막 비행기로 제주에 입도한 후 제주시 연동 소재 A호텔에 묵었다. 이어 22일 오전에는 중국인 10명이 탑승한 승합차로 산굼부리, 우도(점심 식사), 성산일출봉 등을 관광한 뒤 연동으로 돌아와 제주시내 한 면세점 인근에서 저녁을 먹었다.

23일에는 도보로 제주시내 한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뒤 인근 치킨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후 시내버스로 제주시 칠성동을 둘러보고 다시 시내버스로 숙소로 돌아왔다. 24일에는 버스로 1100고지와 무지개도로를 둘러보고, 도두해안도로 소재 카페에서 점심을 먹었다. 저녁은 숙소 인근 음식점에서 해결했고, 누웨마루 거리를 산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례 정의 범위가 너무 좁아, 잠복기 때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이 정부가 아닌 제주도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유씨가 밀접하게 접촉한 인물과 일상적으로 접촉한 인물을 분리하는 작업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2일 제주국제

공항 1층 국내선 도착장에 발열감시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중국인 뿐만 아니라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체에 대한 발열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다. 3일에는 제주항 제 3·6부두 도착장에도 각각 발열감시 카메라 1대씩을 설치할 예정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는 2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브리핑을 열고 “무사증제도 일시 중단과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무사증 입국 사상 첫 일시 중단

정부, 2일 신종코로나 확산 우려 제주와 협의 결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지역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무사증으로 제주 여행을 했던 중국인 개별 관광객이 지난달 30일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 확산 우려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4일 0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있는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을 제한하

겠다”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우리 국민의 경우 입국후 14일간 자가 격리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제도는 2002년 제주특별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 중국 등 외국인인 사증 없

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무사증 일시 중지는 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법무부의 고시로 한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는데, 무비자 입국이 일시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주도가 건의한 무비자 전면 일시 중지 조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 “빠를 짚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조치는 도민 건강과 안전,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거치며 숙고한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부미연기자

교육국장 문영봉·서귀포시교육장 고용범

제주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발표

3월 1일자... 승진 25명·전직 43명 등 247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에 문영봉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장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 고용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이 임명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자 시행될 예정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프로필·인사명단 7-13면

이번 인사 인원은 247명(초등 106명·중등 141명)이다. >정년퇴직 26명(유치원 2명, 초등 6명, 중등 18명) >명예퇴직 86명(유치원 1명, 초등 25명, 중등 60명) >교장중임 8명(초등 7명, 중등 1명) >승진 25명(초등 15명, 중등 10명) >전직 43명(초등 20명, 중등 23명) >전보 57명(초등 29명, 중등 28명) >파견 및 파견복귀 2명이 포함됐다.

오승식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정년 퇴직하면서 빈 자리는 문영봉 제주제일고등학교 교장이 이어받는다. 고용범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승진을 하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을 맡게 됐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에는 김영대 제주시교육지원청 장학관이 승진 임명됐고, 체육건강과장에는 양덕부 서귀포중학교 교장이 발령됐다. 이어 >민주시민교육과장에 김용관 오름중학교 교장 >탐라교육원에 김조현 제주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에 김순아 중문초등학교 교장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에 양창선 서귀중양초등학교교장설치원 원감이 임명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경영 능력을 고려하고 전문성 확립, 긍정성 유지 등을 원칙으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실현하고 일선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전문성,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배치 임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 따른 신규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임명장과 인사발령 통지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전달된다.

김지은기자

“대한민국에 맛을 입히다”
 2020. 4. 2(목)~ 4. 5(일)
 부산 백승초 제1전시장 3홀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한리일보는 전국 지역 대표신문사와 공동으로 각 지역의 대표 특산물의 판로개척과 판매촉진을 위해 '제6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를 오는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부산광역시 백승초 제1전시장에서 개최합니다.

본 박람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정 농축수산물, 전통음, 발효식품, 기능성식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홍보관 외에도 지역별 문화 및 관광 등의 기타 콘텐츠,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를 통해 박람회를 찾은 소비자에게 불거리와 즐거운 시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품관련 바이어를 특별 초청해 각 지역의 생산자와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판로확대에 기여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에게는 지역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신뢰를 갖는 새로운 장이 될 것입니다.

전국 농축수산물 관련 약 300개 업체가 참여하는 본 박람회의 참여 신청은 2월 2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리일보 홈페이지(http://www.ihalla.com/popup/foodexpo.html)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0년 2월 3일(월) ~ 2월 28일(금)
 ■ 신청대상: 도내 농·축·수산물 식품제조가공업체로 1년 이상 운영한 업체(법인, 개인)
 ■ 신청방법: 홈페이지(http://www.ihalla.com/popup/foodexpo.html) 신청서 다운 → 이메일(eagle501@korea.kr 또는 orca@hallailbo.co.kr) 신청서 송부
 ■ 주 최: 한리일보, 부산MBC, 강원도민일보, 경북일보, 경남일보,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중부일보
 ■ 주 관: (주)한국전시산업원
 ■ 후 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문 의: 한리일보사 ☎ 064-750-2523, 2540 또는 도 식품원예과 ☎ 064-710-3133

무사증 입국 일시중지에 따른 담화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전면 일시중지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새로운 감염병이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확진 환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98%가 중국인입니다.

이번 조치는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청정제주를 지키기 위해 제주도가 정부에 건의했고, 긴밀한 논의를 거쳐 내린 결단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제주경제를 고려하면,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2002년 4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제주 무사증 입국제가 일시 중지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 관광업계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청정지역 유지만이 향후 사태 진정 후 제주 관광시장 조속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
 에 고통스러운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대승적으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업계 및 소상공인 등 도내 지역경제가 처한 극심한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필요시 지원방안도 마련해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4일부터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고 도민 불안을 덜기 위해 모든 중국인에 대한 비자 입국 일시 금지 조치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제주는 술한 위기를 이겨낸 단단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메르스를 슬기롭게 대처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면 지금의 재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일

Jeju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